

2018년 외교부 업무보고

2018. 1. 19(금)



외 교 부



목 차



I. 2017년 성과와 평가	1
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	3
III. 2018년 업무추진방향	4
1. 기본방향	4
2.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	5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6
1. 주요정책	6
2. 당면현안	21
V. 공통과제 추진계획	23
1. 소득주도성장, 혁신성장 정책(정책 사업 이행계획 등) ...	23
2. 3만불 시대 원년, 정책전환 과제(국민휴식권 보장 등)	
3.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(타협) 과제	
4. 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	24
5. 근무혁신 추진계획	25
[붙임] 2018년, 이렇게 바꾸겠습니다	26

I. 2017년 성과와 평가

□ 2017년 업무추진 환경

-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下 지역적·국제적 도전요인 증가
 - 북한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연이은 도발로 긴장 고조
 - 미·중일러 등 역내 주요국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협력과 경쟁 병존
 - 보호무역주의 추세 등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국제적 협력 기반 약화
- 국내적으로는 탄핵 국면으로 정상외교 공백 등 제약요인 발생
- 북한의 계속된 핵·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관리에 우리의 외교역량 집중

□ 2017년 업무추진 성과

- (정상 외교) 정부 출범 직후 활발한 양자다자 정상외교를 추진하여 정상외교 공백을 조속히 복원하고 대외관계를 정상화
 - 약 7개월 동안 주변 4국과의 활발한 정상회담(미국 3회, 일본 2회, 중국 3회, 러시아 2회) 등을 통해 양자관계 발전 토대 구축
 - 역대 최초로 주변4국 外 EU, ASEAN 등에 대통령 취임 특사를 파견하고, 정상외교 다자회의 참석 및 순방 등을 통해 외교다변화의 기틀 마련
- ※ 주요 다자회의: G20 정상회의(7월), 동방경제포럼(9월), 유엔총회(9월), ASEAN 정상회담(11월)
- 특히, 신남방·신북방정책 천명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서 아세안·인도 및 유라시아 지역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 확대 기반 마련
- (안보 분야) 제6차 핵실험 등 고조되는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, 굳건한 한·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하고 일·중·러 등 주요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유지
 - 한편, 대북 제재/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,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서는 등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주력

- (경제·문화 분야) 주요국·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**보호무역주의 대응 노력 경주**
 -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고위급 외교 및 전방위적 홍보
- (국민과 함께하는 외교) 주요 해외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, 정상 순방 계기 동포간담회(총 8회)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의 소통도 강화
 - ※ 美 리스베가스 총격사건(10월), 발리 화산폭발시 전세기를 통한 신속 귀국 지원(11월) 등
 - 국민의사를 외교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‘국민외교’ 추진체계 구축 노력

□ 업무추진 과정상 애로사항

- 민감한 양자 현안이 미, 중, 일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긴장요인으로 작용
 - 對韓 무역수지 적자 해소 요구 및 한미 FTA 개정 요구 등 미국 우선주의 외교기조 견지
 - 중측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및 경제관계 손상
 -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제약
- 북한 문제 해법 적극 모색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 진전 미미
 - 북한이 비핵화 대화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발 지속
-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진
 - 국론 결집 곤란이 일관된 외교정책 추진 기반에 저해 요소로 작용

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□ 2018년 대내외 정책환경

- 고립주의, 보호주의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는 가운데,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외교 기조 전망
 - 미·중간 경쟁구도는 지속되나, 역내 안정을 위해 갈등수준 관리 예상
 -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된 미국은 ‘미국 우선주의’ 기조 지속
 - 일·중·러는 안정된 국내정세 기반 적극적 대외정책 추진 전망
- 평창 올림픽 계기 남북대화 등을 통한 긴장 완화 가능성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로 인해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 병존
- 지난해의 성공적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우리 외교지평 확대 위한 외교 다변화 수요 급증 예상
- 투명한 외교정책 결정 및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제고와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 지속 증가 예상

□ 2018년 갈등요인 및 장애요인

- 주요국간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심화되고 대립이 격화될 경우, 국제 체제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배가될 가능성
 - 글로벌 어젠다(기후변화, 자유무역 등) 합의 도출과 한반도, 중동 등 주요지역 문제 해결에 제약요인 우려
- 북한문제, 남중국해 문제, 역사문제, 영토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역내 주요국 간 양자관계(미중, 미러, 중일, 한일 등) 경색 가능성 상존
- 北 추가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, 북 도발 강행시 미국 내 강경 입장 부각 가능성
- 주요 사안에 대한 국내여론이 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일관되게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 지속

Ⅲ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1. 기본방향

□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'국익·국민 중심의 외교' 추진

- (한반도) 北 평창 올림픽 참석 및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
 - 고위급 외교행사 지원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
 - 北·美를 대화 프로세스에 편입시키는데 집중 → 남북대화-북미대화간 선순환 추진
- (주변 4국) 주변 4국와의 협력외교 강화 및 안정적 현안 관리
 - 한·미간 합의 원칙에 기반한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 도모
 - 한·중간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추진
 - 한·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
 - 한·러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 경제협력 확대 추진
- (외교 다변화)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
 - 신남방·신북방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에 따른 체계적 추진
 - 인도, 유럽, 중남미, 아중동 등 보다 폭넓은 지역과의 협력 심화
 - 국제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 참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강화
- (경제·개발외교)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경제·개발외교 추진
 - 주요국·신흥경제권과의 경제관계 강화,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 참여
 - 해외 우리기업 활동 지원 강화 및 경제협력을 위한 법·제도적 환경 조성
 - 국제사회의 평화·번영에 기여하는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
- (국민과 함께하는 외교) 국민과의 소통, 국민의 참여, 국민의 보호에 힘쓰는 외교 추진
 - 외교에 대한 국민의 △의견 수렴 △이해 제고 △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
 -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계획을 망라한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착실한 이행
 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및 영사서비스 강화

2.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

- 안정적 대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및 국가위상 제고
 - (한반도)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실질적 성과 거양
 - 남북/북미대화간 선순환 구조 정착
 -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지속 확보
 - (주변 4국)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협력 증진
 - 한·미간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
 - 한·중간 분야별 교류·협력의 조기 회복으로 전면적 관계 정상화
 - 한·일간 '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에 걸맞는 관계 발전 실현
 - 한·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 교역 300억불-인적교류 100만 달성 기반 마련
 - (외교다변화)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
 - 신남방·신북방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
 - 인도, 유럽, 중남미 등 지역과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관계 격상
 -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제고
 - (경제·개발외교) 일자리, 소득주도 성장과 국익에 기여하는 경제·개발외교 구현
 -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신흥경제권과의 다변화된 경제협력 증진 방향 제시
 - 우리 국민,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을 통해 일자리,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기여
 -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을 우리의 핵심 외교자산으로 활용
 - (국민과 함께하는 외교) 국민에게 인정받고 지지받는 외교 구현 및 국민 체감 보호수준 제고
 - 국민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외교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
 - 통합적·체계적·현지맞춤형 공공외교 추진을 통한 매력한국 이미지 제고
 - 24시간 365일 재외국민보호의 컨트롤 타워로서 「해외안전지킴센터」 역할 정립
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목표

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익 극대화 외교 전개

전략

국익 중심 외교

- 안정적 대외관계 기반 실질협력 증진
- 외교 지평 확대 및 국가위상 제고

국민 중심 외교

-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의 외교역량 결집
-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강화

정책 과제

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(국정과제 97번)

- 한미간 합의 원칙에 기반한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
- 한중간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추진
-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
- 한러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실질협력 확대 추진
-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(국정과제 98번)

외교다변화 추진 (국정과제 98번)

- 신남방정책, 신북방정책의 체계적 추진
- 유럽, 중남미, 아중동 등 폭넓은 지역과의 협력 심화
-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강화

국익 증진을 위한 경제·개발외교 (국정과제 99번)

- 주요국, 신흥경제권과의 관계 강화 및 글로벌 경제협력 참여
- 해외진출기업 활동 및 해외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
-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체계적·전략적 개발협력 추진

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(국정과제 10, 96번)

- 「국민외교센터」 등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
- 「해외안전지킴센터」 등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강화
- 740만 재외동포들의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
- 통합적현지맞춤형 공공외교 추진으로 매력한국 이미지 제고



당면 현안

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(국정과제 95번)

-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下 성공개최 되도록 美 등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
- 北 평창 참가 및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도록 노력
- 북-미를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편입 → 남북대화-북미대화간 선순환 추진

1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

가. 한·미 관계 :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

-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한·미 관계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
 - * 신정부 출범 후 한·미 정상회담 3회, 통화 9회
- 정책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및 대외 메시지 조율 강화
 - 외교장관 등 고위급, 외교·국방 2+2 장관회담, 확장억제전략협의체 (EDSCG, 1.17 개최) 등 다양한 공식 채널 적극 가동
 - 주요 이슈에 대한 美 의회, 언론, 학계 등 여론주도층 대상 공공외교 적극 전개
- 당면 현안별 구체 추진 방향
 - (북핵·북한) △성공적인 평창 올림픽 개최를 위한 미측의 전적인 협조 확보 △남북 관계 개선과 북·미 대화가 상호 추동하면서 비핵화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관리
 - (한·미 FTA) 이익 균형 달성 노력
 - (방위비 분담)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호혜적 협상 결과 도출 노력
- 굳건한 한·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과의 양자 관계 발전 및 한·미·일, 한·중·일 등 다양한 역내 소다자 협의 추진
 - 한·미·중 3자 협의 추진을 위한 미측의 협력 확보
 - 한·중 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유도 등 한·미간 전략적 이해에 부합함을 지속 설명

나. 한·중 관계 : 국민방중 후속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 본격화

-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 교류·협력 회복·발전 가속화를 위해 △평창 올림픽 △3월 중국 신정부 출범 등 계기 적극 활용
 - 국민방중 시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

- △교류협력 정상화 △미래지향적 실질협력 추진 △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기여 견인

○ 평창 올림픽을 발판으로 인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, 인문 교류 재가동, 다양한 공공외교를 통해 중국 내 對韓 우호정서 확산

□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과의 관왕지래(觀往知來) 협력 모색

○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

○ 우리의 상하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 등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이를 보다 뜻 깊게 기념하며 양국간 우의를 다지는 적절한 방안 검토

○ 금년 한·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10주년 및 중국의 최대 기념일인 개혁개방 40주년(12.18) 계기를 활용한 협력 가능성 검토

다. 한일 관계 : 역사 문제 해결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병행 추진

□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현안 관리

○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입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추진

○ 여타 과거사 및 민감 현안 관리 노력 지속

□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 지속 도모

○ 북핵·북한 문제 관련 전략적 공조 지속·강화

* 안보리 대북제재 충실 이행, 일본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의 대북 대화 및 압박 조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공조

○ 경제 및 인적교류 포함 실질협력 구체화 노력 지속 경주

* 교역·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및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창출, 한·일 청소년 교류 강화 및 우리 인재의 일본 내 취업 증대 등

□ 적극적 對日 공공외교 추진

* 일본 내 시민사회·학계·언론계와 네트워크 강화 등

☞ 평창 올림픽,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 등 주요 계기를

양국간 인적 교류 증진 및 관계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

라. 한·러 관계 : 한·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새로운 발전 기반 마련

- 한·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 적극 확대
 - 고위인사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간 신뢰관계 공고화 및 전략적 소통 강화
 - * 「한·러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불, 인적교류 100만」 목표 달성 기반 마련
-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와의 소통 강화
 -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의 평화·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
- 한·러 실질협력 격상 노력 및 對러시아 공공외교 강화
 - 「한·러 지방협력포럼」 발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 중소기업들의 대러 진출 지원
 -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, 한·러 대화 등 의회·민간 교류 가속화
 - 2020년 한·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착수
-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로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
 - 「9개 다리(9-Bridge) 분야」*의 실질적 성과 거양 추진
 - * 2017.9월 한-러 정상회담 계기 합의된 수산, 농업, 전력, 철도, 북극항로, 가스, 조선, 항만, 산업단지 등 9개 사업

마.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 추진

- 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 극복을 위한 다자·소다자(한일중) 협력 지속 추진
 - 동북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(EAS, ASEAN+3, ARF)과 한일중 3국협력체제의 병행 추진으로 역내 협력적 환경 조성 노력

- 우리 주도의 역내 다자협외(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)의 내실화 및 주요국 참여 적극 견인
 - 금년 하반기 다자협외 개최 및 다양한 협력외제 발굴 노력
- 일본 개최 예정 한일중 3국 정상회의(일자 미정) 시 우리의 적극적 역할 견지
 - 북핵 등 한반도 정세 관련 3국 차원의 단합된 대외 메시지 발신
 - 한·일·중 3국간 실질협력의 진전 도모

2 외교 다변화 추진

가.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

- 상반기 중 신남방정책의 비전 및 추진체제 완성
 - 對인도 협력 비전 제시
 - 범정부 TF 발족 및 신남방정책 추진 외교역량 강화
- 신남방정책 분야별 행동계획 추진
 - 정상 및 고위급 교류 강화
 -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
 - * 대통령 임기내 아세안 10개국 방문 추진
 - 아세안, 인도와의 총리·장관급 교류 확대 및 정례협의체 활성화
 - 아세안이 우리의 핵심적 협력파트너로 격상되도록 관계 강화
 - * 2020년까지 한-아세안 교역액 2천억불 목표 달성(2016년 기준 1,188억불)
 - 전통 및 비전통안보 협력을 통한 ‘전략적 동반자 관계’ 내실화
 -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지 확보 및 테러·사이버 등 비전통안보 분야로의 협력 확대 추진

나.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 구현

- 신북방정책 본격 가동을 위한 핵심 파트너 대상 외교 강화
 - 러시아·중앙아시아의 인사교류·고위급 협의채널 확대
 - 한-러간 「9개 다리(9-Bridge) 분야」 동시다발적 협력 추진
- 신북방정책-일대일로 구상 간 연계 방안 적극 모색
 - 한·중 경제장관회의 등 계기 연계 협력사업 발굴 노력

다. 유럽 국가와의 포괄적 협력 심화

□ EU 및 유럽 전역 주요 국가들과의 포괄적 협력 심화

-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정상 외교 적극 추진
-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북핵, 글로벌 현안(인권, 민주주의, 개발 등)에서 협력 심화
- 한·EU 수교 55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한 공공외교 강화
- V4(체코, 헝가리, 폴란드, 슬로바키아), 터키, 노르딕 국가 등 우리 기업 진출 거점국들과 산업·인프라·방산 협력 강화

라. 중남미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추진

□ 주요국 대선 등 계기를 활용한 對중남미 외교 강화

- 주요국(칠레, 멕시코 등) 대통령 취임식 계기 특사외교 추진 및 정상 방한 접수 검토

□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협력 심화 및 다변화 모색

- FTA 네트워크 확충 기반 조성 및 신유망 협력 분야(스마트시티 등) 발굴 추진

□ 핵심 지역기구와의 협력 심화

- FEALAC(동아시아·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) 등 핵심 기구와의 협력 심화

마. 아프리카·중동 국가와 포괄적 실질협력 강화

□ 최고위급 교류 재개 등을 통한 포괄적 실질협력 기반 강화

□ 급변하는 지역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기업 지원 및 교민보호 강화

바.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강화

□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

- 유엔,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, 유럽안보협력기구(OSCE) 등 주요 다자 안보 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공조 기반 확대
-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및 국제기구내 영향력 확대 도모

- 국제기구초급전문가 및 유엔봉사단 파견 확대,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등

□ 국제 평화·안보 증진에 대한 기여 확대

- 유엔 평화활동에 능동적 기여·참여
 - 유엔 평화유지활동(PKO) 지속 참여 및 기여 선진화,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 관련 논의 선도 등
- 테러리즘, 사이버 안보,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양자·다자 협의회 개최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 증진
- 핵비확산, 다자 원자력협력체제(IAEA)·수출통제체제 등 국제 군축·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

□ 국제사회의 민주주의·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·확산

-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계기 △한국 인권경험 공유 컨퍼런스 개최
△민주주의 공동체(CD) 집행이사국 활동 등 강화

3 국익 증진을 위한 경제·개발외교

가.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

□ 주요국과의 원만한 경제협력관계 관리 유지·강화 및 정상화 도모

- 고위급 경제협의회 조기 개최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통한 호혜적 실질협력 분야 발굴·확대 및 경제관계 정상화 조속 복원
 - 정·재계 요리에 대한 체계적 아웃리치 실시를 통해 한·미 FTA 등 당면 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
 - 신북방·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 연계, 한·중 FTA 서비스·투자 부문 후속 협상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의 신동력 확보
 - 「9-Bridge」 협력사업 선도 추진 분야 선정, 「2018 이노프롬」 파트너국 참여 등 실질 경제협력 증진 모색
- 금년 예정된 주요국가와의 정상외교의 내실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선도적 준비
 - 한-EU 공동위, 한-인도 공동위 등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여 정상외교 성과사업 논의

□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협력 다변화 추구

-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 마련 및 한-아세안 경협 채널 신설·활성화 등 총체적 관점에 입각한 신남방정책 구현 추진
 -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패키지 지원 사업 발굴, 아세안 주요 회원국과의 경제 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해 무역·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심화 전기 마련
- 중남미·중동 지역 국가 대상 FTA 네트워크 확충, 신산업 분야 협력 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
 - 한-중미 FTA 서명, 한-MERCOSUR TA 협상 개시, 스마트시티, 보건의료, ICT,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 다변화 추진

□ 해외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강화

- 해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 확대·강화 및 개발협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진출 효율적 지원
- 재외공관 해외건설 수주지원협의회 중심 우리 기업 해외 수주 지원 활동 강화 및 미수금 환수, 통관절차·인허가 문제 등 해소 등 지원
- 총 14개 공관 설치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적극 활용, 설명회·협의회 개최 등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 및 현장 중심 수입규제 대응 추진
- 신규원전 도입국(영국·사우디·체코 등) 대상 원전 수출, 수자원 분야 협력, 북극 항로 개척 등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
-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보장협정, 사회보장협정, 항공협정 등 경제협정 체결 및 개정 추진

□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

- G20, APEC, OECD, UN ESCAP 등 지역 및 글로벌 경제협력체 논의 적극 참여, 무역·투자 자유화, 성장전략 등 대외경제 분야 협력 강화
 - 우리 정부 경제정책 설명, 정상·각료 공동선언문 등 관련 문서에 자유무역 확대 메시지 반영
 - 2018 APEC 정상회의 핵심의제(역내 경제통합 심화, 포용적 성장 증진, 구조개혁)별 중점 사업 추진에 기여
- 다보스포럼 등 국제적인 민간 포럼 참석을 통해 우리 경제 정책방향 소개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우호적 대내 여건 조성

□ 범세계적 기후변화·환경 문제への 적극 대처

- 제24차 기후총회(18.12월, 폴란드)까지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타결 후속 협상 적극 참여 및 양자협정 체결을 통한 기후 분야 국제협력 증진

- 국내 미세먼지 대응 기여를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,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전방위적 외교를 추진, 역내 환경협력 강화 모색
-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(GGGI) 및 녹색기후기금(GCF)과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통해 우리의 위상 제고
 - GGGI, GCF와 국내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형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「그린라운드테이블」 매년 정례 개최

나.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외교 강화

□ 문재인 정부의 외교철학 및 정책 브랜드와 연계되는 개발협력 추진

- 개발협력을 정부의 대외정책기조(강한 중견국가로서 사람-평화-상생번영의 3P 추구) 및 주요 이니셔티브(신남방·신북방정책, 외교다변화 등)의 이행을 지원하는 주요자산으로 활용
 - 특히,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책브랜드*를 개발협력에 접목, 동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SDGs 달성 지원
 - * 평화,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축, 양성평등 및 포용,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
 - 3P(사람-평화-상생번영)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원조 정책방향 제시*
 - * 대통령의 개도국 순방 등 계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외원조 이니셔티브 발표 추진

□ 체계적·효과적·포용적 개발협력 이행체계 구축 및 강화

- 개발협력 정책과 외교정책 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노력 강화
 - 대외정책의 최일선에서 외교-개발-경제 3각 체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- 외교부의 개발협력 정책·전략이 KOICA 사업을 통해 구현되도록 지역정책·양자정책과 연계하여 유기적 업무체계 강화
- 개발협력 집행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

- 주관기관의 사업심사시 조정 역할 강화 및 관련 체계 내실화
- 개도국 현장에 정부대표로 상주하는 재외공관의 역할·기능을 강화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시스템 확립
- 국내 비정부부문(시민사회, 기업, ODA 전문가 등)과 함께하는 개발 협력을 위한 ODA 생태계 육성 추진
 - 청년기업, 스타트업기업, 중소기업 및 시민사회, 학계, 개발 NGO 지원을 통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 고용창출에 기여
 - KOICA 사업의 경력사다리 역할을 강화, 개발협력 분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경력 제공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

4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

가. 국민외교

□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

-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의견 존중과 국민의 이해·지지 확대
 - (온라인) △여론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△홈페이지 등 국민 제안 플랫폼 구축 및 기존 채널과 연계하여 운영 △국민제안 공모전 및 부대행사 추진 등
 - (오프라인) △일반 시민, 시민단체 및 전문가 참여 공청회, 간담회 등 개최 △국회 대상 외교정책 관련 라운드테이블 △찾아가는 외교 세미나(지자체 협업) 추진

□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참여 확대

-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들의 외교 역량을 활용, 민주적·절차적 정당성 확보
 - 국민 참여 플랫폼 개편 및 확대 추진(재외국민 보호, 공공외교, 개발 등)

□ 국민외교 추진 기반 구축

- 국민외교센터 등 국민외교 개념과 추진방향에 부합되는 조직 설치 및 세부사업 시행방안 마련중

나.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

□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외국민보호 인프라 강화

-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·사고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「해외안전지킴센터」 설치(3월경)
- 해외 사건·사고 급증에 따른 재외공관 사건사고 영사인력 증원 및 교육·훈련을 통한 영사역량 강화
 - * '18년 사건사고 전담영사 39명(65명→104명), 담당행정원 20명(34명→54명) 증원 예정

-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 제정 추진
 - 외교부안을 마련, 국회 외통위에 상정된 3개의 의원입법안과 함께 논의하여 통합안 마련 추진

□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차세대여권 도입기반 마련

-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(G4K)* 구축 1단계 사업 개시
 - * 1월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T/F 발족 / '19. 3월, 1단계 사업 완료
 - * G4K :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
- PC(Poly Carbonate) 타입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여권 세부사양 마련
 - * OECD 국가의 57%가 PC 타입의 전자여권 도입, 미국·일본 등 주요 국가도 도입 추진 중

□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강화

- 740만 재외동포들의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
 - 세계한인회장대회, 세계한상대회,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개최 지원
- 차세대 동포의 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도모
 - 한국학교·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사업 지속 확대
 - 모국초청연수·장학사업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
- 미국내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법률자문, 정보 제공 등 지원 및 조선적 재일동포의 모국 방문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

다. 공공외교

□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통합조정체제 본격 가동

- 제2차 공공외교위원회(위원장 : 외교부장관) 개최를 통해 2018년도 종합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재외공관 활동계획 공유
 - 중앙부처·지자체간 공공외교 관련 협력방안 논의 및 협업사항 발굴 등 실시

□ 다양한 매력자산(문화, 지식, 정책)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강화

- 재외공관을 통해 정무·경제·문화가 융복합된 현지 맞춤형 종합 한국 홍보행사 지속 추진
- 한-태국 수교 60주년 및 폴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 수교 및 주요 외교 계기 상대국과의 우호증진 및 한국 이미지 제고 도모

□ 한반도 정세, 북핵, 남북관계 등 핵심 외교사안에 대한 주요 국가 여론주도층의 이해도 제고 및 지지 기반 확대

- 미·중·일·러 등 핵심 전략지역 대상 정책설명회, 싱크탱크 간 세미나, 주요인사 방한초청 등 체계적·맞춤형 활동 전개
- 차세대 리더 대상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해외 연구소 내 한국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관련 정책 연구 활성화

□ 국민 역량을 활용한 공공외교 전개

-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 내실화, 청년 공공외교단 및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등을 통한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
- 지자체 및 재외국민의 역량을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 모색을 통한 공공외교 주체의 외연 확대

□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

-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속 홍보 및 방한 인사 지원
- 올림픽 계기 국격 제고 및 국가브랜드 강화 추진

① 평창 올림픽 성공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

□ 개요 및 현황

-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
 - 1.9 남북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 합의
 - 남북관계 개선시, 한반도내 긴장완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진전 기여 평가
- 그러나, 북한은 핵능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
 - 北,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대화 거부중이고, 신년사를 통해 핵·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
 - ☞ 평창 올림픽 계기 마련된 대화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필요

□ 쟁점

- 北 추가도발시 → 한반도 긴장고조 악순환 재발 우려
- 남북대화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·압박체제를 이완시킬 수 있다는 우려 제기

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(평창 올림픽)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 경주
- (대화 모멘텀 활용) 北 평창 올림픽 참가 및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집중

- 한미간 굳건한 공조하에 도발중단 및 대화재개 메시지 지속 발신
 - 중국,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지속 견인
 - 국제사회 대북공조 노력 지속
 -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철저 이행
- (비핵화 대화 재개) 北·美를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편입시키는데 집중 → 남북대화-북미대화간 선순환 추진
-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간 선순환 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
 - 남북/북미대화를 핵심축으로 유지하면서, 향후 본격적인 대화국면 진입 추진

V. 공통과제 추진계획

1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 정책

□ 일자리·소득주도 성장 실현을 위한 해외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

- △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 확대·강화 △개발협력과의 연계 등을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△JPO 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내실화
- 해외 일자리 창출 여건이 양호한 일본 내 우리 인재 취업 증대를 위한 구체 제도적 방안 추진
 - * △우리 대학 3학년생의 일본 대학 4학년 과정 이수 후 현지 취업 방안(3+1 방안)
 - △우리 산업인력공단-일 경제단체간 협력 MOU 체결 △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정 추진 등

□ 우리 경제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노력 강화

- 미국 등 주요국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
 - *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(SED) 및 민관합동포럼, EU 및 EU 주요국가와의 공동위, 한·중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방안 논의
- 인도·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외교, 고위급 협의회 등을 통해 win-win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우리 해외시장 다변화 도모

4

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

- 국민의 해외 사건·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안전여행 홍보 강화
 - 국민과의 온·오프라인 쌍방향 소통을 통한 안전 정보 적시 전파
 - △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(0404.go.kr) △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△외교부 공식 SNS △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등을 통해 우리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정보 제공
 - 주요 성수기 계기 선교사 및 여행사 안전간담회 개최를 통한 안전정보 공유 및 전파
 - 접근성 높은 홍보매체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
 - 뉴스채널·신문·주요 종편 및 케이블 채널 통한 최신 해외안전 여행 정보 상시 제공(△YTN 「해외안전여행정보」 △KBS World 「한민족 네트워크」 등)
- 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대비 태세 점검
 -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위기대응역량 강화
 - 본부-공관-한인회 등 참여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(연4회)
 - 재난대비 쏠 재외공관의 모의훈련 확대 실시(연 1회→연 2회)
 - 해외 치안 취약지역에 대한 한인치안활동지원사업 실시
 - 한인 자율방범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(예 : CCTV) 지원
- 24시간 364일 해외 사건·사고 대응 역량 강화
 - 해외 사건·사고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「해외안전지킴센터」 설치(3월경)

□ 공정·균형·개방된 인사를 통한 외교역량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

- 현재 진행중인 인사 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본격적인 성과 구현
 - 외시여부연공서열과 무관하게 능력있는 인재 발굴(주요보직 보임)
 - 여성관리자 확대 및 소수 직렬에 대한 균형인사
 - 공관장 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적극 발굴·영입

□ 신뢰받고 깨끗한 조직을 구현하여 직원 자긍심 제고

- (재외공관 감찰기능 강화) △비위행위 예방 △초동단계 해결
△무관용원칙 강력 적용으로 깨끗한 조직 구현
- (다면평가 검증 제도 개선) 평가자 및 평가문항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비교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
 - 관리자급 직원 리더십 역량검증 대상 확대 및 하위자 평가 강화

□ 업무방식의 효율성 제고

- (보고 및 회의 체계 효율화) △불필요한 문서 업무 발굴·폐지
△전자결재 및 문서활용도 제고(메모, 공람, 배포 등) △보안 이메일을 통한 보고 및 정보공유 활성화 △회의방식 변경(단순 정보공유→심층토론) 및 영상회의 활용 제고 등
- (IT기반 업무환경 조성) △ 공유시스템내 문서작업을 통해 실시간 지식공유 및 기록유지 △지식iN서비스 및 블로그 도입을 통한 모범사례 및 전문지식 공유

□ 일·가정이 양립하는 가정친화적·탈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구현

- △유연근무 및 연가사용 활성화 △불필요한 야근, 휴일근무 근절
 - * △이·부임시 적정 일수 연가 부여 △연가 사용률 부서장 평가 상향 조정
 - △주말 출장시 대체휴무 부여 △초과근무 및 일과 후 업무연락 최소화
- (다양한 형식의 소통의 장 마련) △장차관-실무직원간 타운홀 미팅
△노-사 협력위원회 △상-하직원간 멘토링 △주니어보드(가칭) 운영
△블로그 및 동호회 활동 지원 △혁신 게시판 운영 등

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국민의 삶 구현

한반도

-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개최
- 남북관계 개선
-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 거양
- 한반도 평화구축 진전

주변

-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
- 주요 현안의 합리적 해결 통한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
- 외교다변화 및 지역협력 심화를 통한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
-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

국민

- 해외일자리 창출 및 우리 청년의 활발한 해외 진출
- 경제외교 지원 통한 해외진출기업 활동기반 강화
- 국민외교센터 설치로 국민외교 강화
-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한 24시간 365일 재외국민보호

국민 중심, 국익 중심 외교 추진

평창올림픽 성공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

외교다변화 추진

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강화

국익 증진을 위한 경제 개발외교

국민과 함께하는 외교

외교부 혁신